평화애호로 확증된 정의

조선인민의 최고령도자, 조선로동당 제 1 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 1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인민을 령도하시는 첫시기에 다음과 같이 선언하시였다.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키는것은 조성된 정세의 필수적 요구입니다.

…

조성된 사태에 대처하여 우리는 부득불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응조치의 일환으로 자위적인 제 3 차 지하핵시험을 단행하였습니다.

…

핵강국의 존엄과 위력으로 대외활동을 배심있게 벌려 우리 당의 국제적권위를 더욱 높이고 자주적대를 철저히 세우면서 강성국가건설을 힘있게 추동할수 있는 대외적조건과 환경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우리를 핵무력강화에로 떠밀고있는 근원인 미국의 대조선적대시 정책의 반동성과 부당성을 폭로하고 우리의 선택과 로선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대외활동을 주동적으로 벌려 국제무대에서 우리의 지지자, 동정자대렬을 늘여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책임있는 핵보유국으로서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며 국제사회앞에 지닌 핵전파방지의무를 성실히 리행하고 세계의 비핵화실현에 이바지할것입니다.》

그이께서는 2012 년 **김일성**동지 탄생 100 돐경축 열병식연설에서 군사기술적우세는 더는 제국주의자들의 독점물이 아니며 지난 시기 적들이 원자탄으로 조선을 위협공갈하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다고 현 정세를 명철하게 분석총화하시였다.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 조선인민, 만난시련을 이겨 내며 당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조선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만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자는것이 조선혁명의 영원한 전략이라고 독특한 선언을 하시였다.

과연 우리가 고르바쵸브와 옐찐의 입에서 이러한 말을 들어본적이 있는가, 과연 그 언제 우리 나라의 자유 사상가들이 우리를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인민이라고 불러본 적이 있는가, 과연 우리 나라의 민주주의자들이 한번이라도 인민들의 행복에 대하여 언급한적이 있었던가?

신문《뉴욕 타임스》는 조선의 령도자의 연설은 젊음이 용솟음치는 새로운 령도의 힘을 시위하고있다고 서술하였다.

2013 년과 2014 년에 **김정은**동지께서는 많은 연설들을 하시였다.

그 연설들은 말로만이 아니라 실천으로 이어졌다. 조선은 악마들과 맞서 인민경제를 발전시키고 과학과 기술을 전진시켰으며 우주를 정복하고 군사력을 강화하였다. 누구나 인정하듯이 조선의 로케트들은 이미 미국이라는 아시아대륙밖의 지역에까지 가닿을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있다. 오늘날 12 만㎢의 령토와 2 500 만의 인구를 가진 조선은 아시아에서뿐만아니라 전세계에서 양키들의 패권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극히 적은 나라들중의 하나로 되고있다.

현대력사에서 이름난 사변들을 비교해보면서 나는 서방에서 일일이 묵과되고있는 사실에 항상 관심을 가지게 된다.

그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도이췰란드와 영국, 프랑스와 같은 유럽의 고래들과 비교해볼 때 자주적이며 자립적인 측면에서 조선이 표본으로 되고있기때문이다. 《기타 여러 유럽나라들》에 대하여서는 이런 관점에서 보는것이 우스운 일이다.

더우기 미국은 군사대국이다(금융 및 경제적측면에서 대국의 가능성은 의심스러우며 애매한것이다). 하지만 조선은 미국을

두려워하지 않을뿐아니라 실지 우리의 면전에서 전쟁의 고전방식을 깨뜨렸다.

상기하건대 공격자가 승리를 달성하자면 공격자와 방어자사이의 력량대비가 적어도 3 대 1 이 되여야 한다. 만약 조선측을 1 로 본다면 미국은 군사적면에서 3, 아니 300, 지어 3 000 으로 보아야 할것이다.

그런데 결과를 놓고 보면 생명은 건진다하더라도 가죽 전체를 잃을수 있는 두려움으로 하여 늙어빠진 미국이라는 범이 조선이라는 힘을 다잡은 표범에게 감히 덤벼들지 못하고 악에 바쳐 서글프게 으르렁대는것을 우리는 목격하고있다. 그 누구도 미국이라는 비루먹은 맹수를 이제는 세계의 진짜맹수로 인정하지 않고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기껏 4 개나라만이 미합중국으로부터 최고의 증오를 받는 대상으로 되고있다. 미국은 이 나라들에 대하여 대량살륙무기사용을 예견한 항시적이고도 구체적인 군사적선제타격 계획을 세우고있다. 물론 미국은 전세계를 조준경안에 넣고있다. 그러나 미국에 있어서 이 4 개나라가 저들에게 선차적이며 항시적인 감정 즉 증오감과 공포, 혼란을 야기시키는 대상으로 되고있다.

그러면 북아메리카대국의 기본적수들이 누구이겠는가? 그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옐찐이후시기), 중국, 이란이다.

자유를 사랑하는 세계인민들은 이 나라들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굴함없이 앞으로만 전진하는 진보적인류의 가장 존엄높은 자리에 내세우고있으며 이러한 나라들이 많이 늘어나기를 바라고있다.

이 훌륭한 4 개나라의 력사적계주봉을 더욱 훌륭하게, 더욱 완벽하게 이어나가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공연히 북조선이 총소리만 내고있다고 묘사하고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을 찾고 또 찾으시고계신다.

그이께서는 새해에 즈음하여 하신 신년사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의 보루이며 자주와 정의의 성새라고 확언하시였다.

조선의 분렬, 조선민족의 분렬은 사실 미국에 의하여 산생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민족이 분렬된 때로부터 70 년세월이 흘렀다고 하시면서 세기를 이어오는 민족분렬의 비극을 이제 더 이상 참을수도 허용할수도 없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천명하시였다.

《지난해에 우리는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을 위한 중대제안들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하여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내외 반통일세력의 방해책동으로 하여 응당한 결실을 보지 못하였으며 북남관계는 도리여 악화의 길로 줄달음쳤습니다.

…

우리 민족의 뜻과 힘을 합친다면 못해낼 일이 없습니다.

…

우리는 남조선당국이 진실로 대화를 통하여 북남관계를 개선하려는 립장이라면 중단된 고위급접촉도 재개할수 있고 부문별회담도 할수 있다고 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령도자의 평화애호적인 이 연설은 서방이 조선의 지도부와 인민에 대하여 함부로 헐뜯고있는 소동속에서 울려나왔다.

뒤로 물로서는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권침해》를 구실로 조선에 가해지는 모든 무근거한 비난들을 쓸어버리였다.

미국에 추종하는 유엔의 졸개들과 같은 가짜권위자들의 지껄임은 조선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더우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완전한 자주적인 국가로서 언제나 놀라운 외교적융통성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능력을 발휘하였다.

조선은 지난 시기 내놓은 평화적발기를 더욱 발전시켜 새해에 중요한 제안을 제시하였다. 조선의 사회주의자들이 군국주의로 나간다는 거짓말을 퍼뜨리는자들이 어쩔수 없게 되였다.

전쟁의 위험을 가시고 긴장을 해소하며 지역의 평화적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선은 앞으로 핵시험도 중지할수 있다는데 대하여 발표하였다. 이러한 핵시험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적들에게 있어서 공포라고 하지 않아도 큰 걱정거리로 된다.

그런데 조선은 그런 공포에 휩싸이지 않게 핵시험을 중지할데 대해 자원적으로 제기하고있다. 물론 호상양보에 기초하여...

그 대답으로 미국과 남조선은 해마다 진행하는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하여야 한다. 알려진것처럼 미국과 남조선은 조선반도의 남쪽지역에 핵무기를 포함하여 수많은 지상, 해상 및 공중무기들을 끌어들이고 군사연습들을 벌리고있다. 이러한 군사연습들은 조선반도의 화약고에 달린 도화선과 같다.

다 아는바와 같이 조선은 원동지역과 접하여있다. 항시적으로 원동지역계선에 거대한 군사장비들을 끌어들이는것은 조선만이 아니라 중국과 로씨야에 있어서도 큰 위협으로 되고있다. 이 두 나라는 미국과의 무력균형으로 놓고볼 때 아직 거리가 멀다.

그러나 세계적인 대결속에서 미국의 기본적수로 되고있는 이 나라들이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터지면 쉽게 말려들수 있으므로 미국은 중국과 로씨야를 어떻게 하나 약화시키려고 하고있다.

이로부터 나오는 결론은 **김정은**동지께서 확신성있게 령도하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태평양에서 오는 공격으로부터 중국과 로씨야의 리익도 튼튼히 수호하는 기본력량으로 된다는것이다.

군사작전계획의 견지에서 놓고볼 때 로씨야는 아마 그 덕을 먼저 볼것이다. 자유롭고 강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존재하는 오늘날 서방이 공개적으로 탐내는 우리의 씨비리자연부원에 대한 점령은 매우 어려운것으로 되고있다.

25 년전 쏘련이 붕괴되자 나는 이제는 대내외반동세력의 부추김을 받은 린접한 모든 이웃들이 로씨야를 반대하여 (일부는 손에 무장을 들고) 나설것이라고 생각하였었다. 벨라루씨와 조선은 제외하고...

중국에 대하여서는 문제가 다르다. 중국과의 전쟁은 서방이 로씨야를 정복하고 앞으로 중국을 침략하기 위한 자기의 동맹국으로 만드는 경우에 가능하다. 혹은 중국을 자기쪽으로 끌어당겨 이와 류사하게 로씨야를 반대하는것으로 될것이다. 서방의 전략가들은 로씨야와 중국을 맞서게 하고 자기네는 일정한 기간 지켜보려는 타산이다. 혁명이전이나 혁명이후에나 력사적으로 중국과 로씨야사이에 비극적인 군사적충돌이 있었던 전례가 이러한 론거를 더해주고있다. 그렇게 되자면 중국과 로씨야가 서로 싸우게 하는 그 어떤 《촉매제》가 필요하다.

《개혁》의 결과를 놓고보면 이것은 전적으로 로씨야로부터 발생할수 있었다. 중국으로부터는 그럴수가 없었다. 중국은 1980 년대말에 자기의 《개혁제창자》들을 엄하게 처벌하였으며 지금도 그들을 용서하지 않고있다.

공동의 진정한 리익으로부터 출발하는 일은 활기를 부어준다.

조선의 사회주의자들은 지난 시기에도 로씨야를 공격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공격하지 않을것이다. 평양에서 체제변화가 일어날수 없으며 체제변화를 꿈꾸는것이 무모한짓이라는것을 가장 지독한 도발자들도 알게 될것이다.

강물이 거꾸로 흐르면 흘렀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 사이의 관계가 적대관계로 되는 일은 결코 없을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남조선에서 해마다 그칠 사이없이 벌어지는 대규모군사연습들이 조선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키고 핵전쟁의 위협을 몰아오는 주되는 화근으로 된다고 하는 평양의 주장은 정당하다. 상대방을 반대하는 전쟁연습이 벌어지는 살벌한 분위기속에서 안정과 긴장완화를 실현하기

위한 신의있는 대화가 이루어질수 없으며 미국은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버리고 대담하게 정책변화를 하여야 한다는것은 매우 정당한것이다.

김정은동지께서 밝히신바와 같이 조선반도에서 합동군사연습을 없애고 올해를 의의깊은 해로 만든다면 그것은 조선의 통일과 동북아시아에서의 평화와 안전을 이룩하는데 커다란 공헌으로 될것이다.

라브렌찌 구르드쥐예브